

馬丹陽天星十二穴歌에 關한 研究

朴基院·金慶鎬·尹鍾和·金甲成*

I. 緒 論

歌는 歌訣 또는 歌括 이라고도 하며¹⁾ 歌訣이란 記憶하기 쉽도록 要點만을 간추려서 노래형식으로 만든 韻文 또는 精製된 글귀로써 보통 한句에 3字, 5字, 7字등 여러 종류가 있다²⁾.

歌賦는 形式이 含蓄的이며 쉽게 記憶할 수 있는 長點이 있고 醫學의 教育이나 實際에 있어서의 便利함 때문에 醫學의 基礎理論에서부터 本草, 湯液, 針灸, 診斷 등의 모든 分野에서 폭넓게 活用 되었던 形式이며³⁾, 특히 針灸歌賦는 經絡歌 刺灸歌 輸穴歌 治療歌로 大別되며⁴⁾ 大略 歌訣이 90餘首 賦가 10餘首 정도이다⁵⁾.

歌賦에 관해서 竇는 “지금 이렇게 俞穴들을 외어 놓으면 間或 잊어버리지만 그 韻律에 맞추어 외어 놓으면 잘 記憶 된다.” 하여 歌賦의 便利함을 말했지만 高는 “標幽, 玉龍, 主後 등 諸家들의 賦를 지금의 醫家들은 暗記하여 외우기 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로지 이런 歌賦에만 매달린다면 針灸術이 狹小해질 것이다.” 하여 歌賦의 便利함과 동시에 歌賦에만 매달리는 것을 警戒 했다⁶⁾.

歌賦에 對한 研究로는 朴⁷⁾의 奇經八脈에 關한 難江賦, 金⁸⁾의 手技에 關한 金鍼賦가 있으나, 五言歌訣의 治療歌에 屬하는 馬丹陽天星十二穴歌에 關한 研究論文은 없었다.

이에 著者는 四肢肘膝 以下⁹⁾ ¹⁰⁾에 있어 取穴이 쉽고 安全하며 針刺感應이 強하고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1) 朴旻南, 孟雄在 : 蘭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992, 4, p.66.
- 2) 金慶鎬 外 3人 : 金針賦의 手技補瀉法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東國漢醫大 研究所 論文集 第2卷 第2輯, 1993, p.205.
- 3) 朴旻南, 孟雄在 : 上揭書, p.66.
- 4) 施士生編 : 針灸歌賦校釋, 中國,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pp.1~3.
- 5) 朴旻南, 孟雄在 : 上揭書, p.66.
- 6) 金慶鎬 外 3人 : 上揭書, p.205.
- 7) 朴旻南, 孟雄在 : 上揭書, pp.66~70.
- 8) 金慶鎬 外 3人 : 上揭書, pp.205~240.
- 9) 金慶鎬 外 3人 : 上揭書, pp.205~240.
- 10) 金慶鎬 外 3人 : 上揭書, pp.205~240.

四肢部에 있는 穴들은 頭部, 顔面부, 軀幹部의 疾患을 治療할 수 있으나 軀幹部의 穴들은 四肢의 病症을 治療할 수 있는 것이 極히 적다.

- 10) 上海中醫學院編 : 針灸學, 商務印書館出版, 1982, p.66.

十二經脈과 穴位의 關係는 四肢 肘膝以下 穴位가 主가 되므로 “本輸”라 稱한다.

治療效果 또한 빠르고 同時에 遠道取穴의 典範이 되는 天星十二穴의 部位 取穴法, 針法, 效能, 主治症을 詳細히 研究하여 針灸醫家로써 폭넓게 活用해야할 必要性을 느껴 고찰한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II. 資 料

針灸大成¹¹⁾ 中에 있는 馬丹陽天星十二穴治雜病歌를 原本으로 하였다.

〈原文〉三里 內庭膻, 曲池 合谷接, 委中配 承山, 太衝 崑崙穴, 環跳與陽陵, 通里并列缺.

〈解釋〉三里와 內庭穴, 曲池와 合谷은 가까이 있으며, 委中과 承山이 짝이 되고, 太衝과 崑崙穴, 環跳와 陽陵泉은 더불어 있으며, 通리와 列缺이 合한다.

〈原文〉合擔用法擔, 合截用法截¹²⁾, 三百六十穴, 不出十二訣.

〈解釋〉擔法이 合當하면 擔法을 使用하고, 截法이 合當하면 截法을 使用 하니, 三百六十穴이, 十二訣을 벗어나지 않으며.

〈原文〉治病如神靈, 渾如湯潑雪, 北斗降真機¹³⁾.

〈解釋〉病을 治療하는 것이 마치 神靈서러워서, 더운물에 눈을 뿌리는 것 같고, 北斗星이 方向標示의 眞機한 機密을 내려주는 것 같다.

〈原文〉金鎖教開徹, 至人¹⁴⁾ 可傳授, 匪人¹⁵⁾ 莫浪說.

〈解釋〉자물쇠를 여는 徹則을 가르침에, 至人에게는 傳授할 수 있어도, 匪人에게는 함부로 浪說하지 마라.

〈原文〉其一：三里膝眼下, 三寸兩筋間. 能通心服脹, 善治胃中寒, 腸鳴并泄瀉, 腿腫膝痠, 傷寒羸瘦損, 氣壅及諸般. 年過三旬後, 針灸眼便寬. 取穴當審的, 八分三壯安.

〈解釋〉삼리는 膝眼 밑이니, 三寸 떨어진 양쪽 筋사이에 있으며, 能히 心 腹 脹을 通할 것이요, 胃속이 찬것과 腸鳴 泄瀉를 잘 治療하고, 다리가 붓고 무릎이 시리고, 傷寒으로 야위는 損症과 氣壅 및 諸般 症狀에 應用하고, 三十歲 以後에 針灸를 施行하면 눈이 便安해지며 取穴을 할때에는 當然히 細心하게

11)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 校勘主解 針灸大成,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74年, pp.111~113.

12) 李鼎 主編: 針灸釋難,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6, pp.89~90.

① 擔: 補法; 孟擔, 雙조의 뜻이 있고, 截: 瀉法; 截半, 截止, 저欄의 뜻이 있다.

② “右手提引謂之擔, 左手推按謂之截”

③ 擔: 取雙穴 截: 取單穴

④ 一般의 으로 左右兩經을 함께 取穴 하는것을 擔이라 하는데 上下肢 함께 單穴만 取穴 했을때는 上截 下截이라 하며 左右同擔, 上下同擔은 모두 同經 惑은 同名經을 함께 取穴하는데 《攔江賦》의 “皆在本經 擔與截”에 根據함.

13) 呂瑞 外 二人 編: 經穴治療歌賦解說, 홍콩, 上海書局有限公司, 1990, 7, p.99.

北斗는 곧 北斗星이다, 이것은 航海하고 測量하는 사람들이 별을보고 方向標 志를 아는 것 처럼 北斗星이 方向을 提示 하는 것에서, 人間의 雜病을 治療 하는 참되고 바른 機密을 내려 준다는 것이 比喩한것.

14) 施士生 編: 上揭書, p.115.

古代에 思想및 道德의인 面에서 最高의 境地에 이룬 사람을 稱함.

《荀子 天論》“故明于天人之分, 則可謂至人矣”

15) 施士生 編: 上揭書, pp.115~116.

非親信人을 말함, 即 行爲가 不正한 사람.

살펴야 하고, 八分の 깊이로 刺針하고 灸는 三壯이 適當하다.

〈原文〉其二：內庭次趾外，本屬足陽明。能治四肢厥，喜靜惡聞聲，隱疹咽喉痛，數欠及牙疼，虐疾不能食，針著便惺惺¹⁶⁾。針三分，灸三壯。

〈解釋〉內庭은 次趾밖이라, 本來는 足陽明의 所屬이며, 能히 四肢의 厥症을 다스리고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고 소리가 나는 것을 싫어하며, 隱疹 咽喉痛, 하품을 자주 하고 齒痛, 虐疾로 食事を 못할때, 刺針하면 즉시 爽快 해진다. 三分 깊이로 刺針하고, 灸는 三壯을 行한다.

〈原文〉其三：曲池拱手取，屈肘骨邊求。善治手中痛，偏風手不收，挽弓開不得，筋緩莫梳頭，喉閉促欲死，發熱更無休，遍身風癩癩，針着即時瘳。針五分，灸三壯。

〈解釋〉曲池는 두손을 가슴에 대고 取穴 하는데, 팔꿈치를 구부린채 肘骨 옆에서 찾으며, 팔꿈치가 아프고, 風으로 팔을 거두기 困難한데, 활을 당길수 없는데, 筋이 弛緩되어 머리를 빗을 수 없는데, 喉頭가 막혀 죽을 것 같고, 熱이 수시로 날때, 온몸에 風疹 癩病 癩病 등이 있을때, 針을 놓으면 即時 낫는다. 針五分, 灸三壯 한다.

〈原文〉其四：合谷在虎口，兩指骨間。頭疼并面腫，虐病熱還寒，齒牙鼻出血，口禁不開言。針入五分深，令人即便安，灸三壯。

〈解釋〉合谷은 虎口에 있으니, 兩손가락 骨 사이이며. 頭疼과 아울러 面腫 을 다스리며, 虐病의 寒熱과, 蟲齒와 코피, 口禁으로 말을하지 못할때 針을 五分 刺入하면, 即時 便安해 진다, 灸는 三壯한다.

〈原文〉其五：委中曲胛里¹⁷⁾，橫紋脈中央。腰痛不能舉，沈沈引脊梁，筋緩莫展，風痺復無常，膝頭難伸屈，針入即安康，針五分，禁灸。

〈解釋〉委中은 오금의 굽은 속이니, 橫紋脈의 가운데 있으며, 腰痛으로 일어 나지 못하며, 무직하니 등마루가 당기며, 시리고 아파 筋을 펴지 못하며, 風痺가 무시로 發하며, 무릎을 펴기 困難한데에, 刺針하는 即時 便安해진다. 針五分, 禁灸한다.

〈原文〉其六：承山名魚腹，腓腸分肉間。善治腰疼痛，痔疾大便難，脚氣并膝腫，輾轉戰瘛¹⁸⁾，攣亂及轉筋，穴中刺便安，針七分，灸五壯。

〈解釋〉承山의 이름은 魚腹 이라고도 하며, 장단지의 筋肉 사이이며. 허리가 아픈 것을 잘 治療하고, 痔疾과 大便이 어려운 症狀, 各種 무릎이 부는데, 아프고 시려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症狀과, 霍亂 및 轉筋에, 이 穴을 刺針

16) 근瑞 外 二人 編：上揭書, p.100.

針著便惺惺：惺, 惺悟, 明白. 即 內庭穴 針刺後 上述한 疾病이 爽快해 졌다는 뜻.

17) 施土生 編：上揭書, p.117.

주는 股骨과 脛骨의 사이, 俗稱 膝彎 이라함.

18) 施土生 編：上揭書, p.117.

輾轉戰瘛：輾轉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 누워도 不安하여 輾轉寤寐 하는 모습. 即, 脚氣의 疼痛이 加劇하여, 坐臥不安하고 또 戰慄 惡寒, 脚部疼痛 酸重 등의 症狀表現.

하면 便安하다. 針七分, 灸五壯 한다.

〈原文〉其七：太衝足大趾，節後二寸中，動脈知生死¹⁹⁾，能醫驚癇風，咽喉并心脹²⁰⁾ 兩足不能行，七疝偏墜腫，眼目似雲朦，亦能療腰痛，針下有神功，針三分 灸三壯。

〈解釋〉太衝은 발의 大趾 위에 있으니, 마디뒤의 二寸中이며, 그 動脈의 觸診으로 生死를 알수 있으며, 能히 驚癇風을 治療하고, 咽喉疾患과 心脹, 兩足을 行할수 없는데, 七疝으로 偏墜하고 부은데, 눈이 구름긴것 같은데, 또 腰痛을 治療하니 刺針하면 神效하다, 針은 三分 깊이로 灸는 三壯한다.

〈原文〉其八：崑崙足外側，間骨上邊尋。轉筋腰尻痛，暴喘滿衝心²¹⁾，舉步行不得，一動即呻吟，若欲求安樂，須於此穴針，針五分，灸三壯。

〈解釋〉崑崙은 발바깥 복사뼈에 있으며, 발뒤꿈치 上邊에서 取穴하며, 轉筋 攣무니통, 갑작스런 喘息으로 胸滿 衝心 한데, 步行이 不便하여, 한번 움직이면 곧 呻吟하여, 安樂을 구하려면 모름지기 이穴에 刺針하라, 針五分,

灸三壯.

〈原文〉其九：環跳在髀樞，側臥屈足取。折腰²²⁾ 莫能顧，冷風并濕痺，腿과連전痛，轉側重²³⁾ 訶訶²³⁾。若人針灸後，頃刻病消除，針二寸，灸五壯。

〈解釋〉環跳는 髀樞에 있으니, 側臥하여 발을 굽혀 取穴하니. 허리를 빼긋 하여 돌아보지 못하며, 冷風과 濕이 어울려 된 痺症, 다리, 장단지 까지 이어지는 痛症, 움직이면 痛症으로 呻吟하는데, 刺針을 하고나면, 곧 病이除去 될것이다. 針은 二寸깊이로, 灸는 五壯이다.

〈原文〉其十：陽陵居膝下，外廉一寸中。膝腫并麻木，冷痺及偏風，舉足不能起，坐臥似衰翁，針入六分止，神功妙不同，灸三壯。

〈解釋〉陽陵泉은 膝下의 바깥 정강이 一寸에 있으며, 무릎이 붓고 麻痺되는것 같고, 冷痺 및 偏風, 다리를 들어 일어나지 못하며,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는 老人과 같은데, 針을 六分 깊이로 刺入하면 神通한 效力이 있다. 灸는 三壯한다.

19) 施士生 編：上揭書, p.117.

動脈知生死：太衝은 三部九候의 하나임.(足の 衝陽 候胃氣, 太溪 候腎氣) 肝의 原穴, 俞穴, 候厥陰之氣. 《素問 氣交變大論》“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太衝絕者 死不治” 이는 古人들이 太衝部位 動脈의 診斷을 生死判別의 重要部位로 認識하였음.

20) 施士生 編：上揭書, p.117.

心脹：胸膈部를 指稱, 肝氣不舒하여 氣鬱血滯한 所致.

21) 施士生 編：上揭書, p.117.

暴喘滿衝心：腎虛不能納氣로 因해 氣上逆 하여 喘이 된다. 肺喘이 되어 宣降機能이 失調되면 胸悶, 腎青舌紫等 血瘀의 病理變化가 到來. 即, ① 腎膀胱表裏關係, ② 膀胱經의 經別이 心에 循行 하므로 崑崙을 取穴함.

22) 施士生 編：上揭書, p.117.

折腰：古代에 彎腰하여 行하는 禮節을 折腰라함. 腰部가 疼痛하여 前後俯仰 轉側하지 못함을 이룸.

23) 施士生 編：上揭書, p.117.

訶訶：嘆聲, 疾病의 苦痛이 甚하여 連續으로 發하는 소리 또 特別히 悲痛한 모양.

〈原文〉 其十一：通里腕側後，去腕一寸中。欲言聲不出，懊惱及怔忡，實則四肢重²⁴⁾，頭上面頰紅，虛則不能食²⁵⁾，暴昏面無容，毫針微微刺，方信有神功，針三分，灸三壯。

〈解釋〉 通리는 팔목 側後部 一寸에 있으며, 말하려 해도 나오지 않고,懊惱와 정충症, 實症으로 四肢가 무겁고, 머리와 얼굴 및 뺨이 붉은데, 虛하여 食事を 잘 못하고, 갑자기 말을 못하고 얼굴이 端正하지 못한데, 毫針으로 微微하게 刺針을 하면, 어느새 神奇한 效能이 있다. 針三分, 灸三壯 한다.

〈原文〉 其十二：列缺腕側上，次指手交叉。善療偏頭患，遍身風痺麻，痰涎頻壅上，口禁不開牙，若能明補瀉，應手即如拏，針三分，灸五壯。

〈解釋〉 列缺은 팔목 側上部, 次指와 손이 交叉되는 곳에서 取穴하며, 偏頭 疾患을 잘 다스리고, 遍身의 風으로 因한 痺症 麻痺, 痰涎이 빈번히 上焦를 막고, 口禁으로 입을 벌릴 수 없을때에, 補瀉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刺針 效果가 손뼉치는 것처럼 쉽다, 針三分, 灸五壯 한다.

III. 本 論

1. 足三里 內庭에 관한 研究.

足三里는 足陽明胃經의 合穴^{26) 27) 28)}이며 六腑下合穴²⁹⁾으로써 調腸胃 降氣逆³⁰⁾의 效能으로 心腹脹 胃中寒 腸鳴 泄瀉를 다스리며 瀉熱

24) 施士生 編：上揭書, p.118.

實則四肢重：四肢는 脾臟 所屬이지만, 이 句節은 心氣가 實하여 四肢脹滿, 身腫, 身重 等の 症狀이 나타남. 자주 氣血瘀滯로 因해 發生.

25) 施士生 編：上揭書, p.118.

虛則不能食：心은 君火이며, 心火가 不足하면 脾陽亦是 衰하고, 母虛함은 子亦是 虛하여(母病及子也) 心脾兩虛하여 不能食 한다.

26)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p.387.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俞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27) 郭靄春 編著：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醫聖堂, 1993, p.182.

“邪在府, 取之合”.

28) 郭靄春 編著：上揭書, p.48~49.

“榮輸治外經, 合治內腑…… 胃合于三里”.

29) 林鍾國 著：針灸治療學, 集文堂, 1983, p.166.

靈樞 本輸篇에 依하면 “六腑는 모두 足三陽經에서 出하여 上行해서 手經과 合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六腑가 腹部에 있으며 足經과의 關係가 密接하므로 足三陽經에 各各 그 合穴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胃의 合穴은 足三里이고 大腸은 上巨虛에 合하며 小腸은 下巨虛에 合하여 모두 足陽明經에 屬해 있다. 本輸篇에서 또 “大腸, 小腸은 모두 胃에 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生理機能이 上下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膀胱의 合穴은 委中이고 三焦는 委陽에서 合해지는데 兩者는 모두 足太陽膀胱經에 屬하여 있다. 三焦는 水道의 役割을 하고 있으므로 膀胱과의 사이는 出屬關係가 있다. 膽의 合穴은 陽陵泉이다. 이와 같이 六腑病에 使用되는 것을 下合穴이라 하며 別稱으로 “腑病合輸”라고도 한다.

30) 郭靄春 編著：上揭書, p.50.

《靈樞 邪氣臟腑病形》 “胃病者 腹臌脹 胃皖當心而痛 上肢兩脇 膈咽不通 飲食 不下取三里”.

淸神³¹⁾의 效能으로 火氣上衝으로 인한 眼疾患을 다스리고 補虛 益氣³²⁾의 效能으로 傷寒 羸瘦損, 氣壅及諸般을 다스리며 中風 및 火氣上衝에 의한 疾病의 豫防에도 應用한다.

足三里는 治療範圍가 매우 廣範하여 《四總穴歌》에 “足三里留” 《千金十穴歌》에 “三里 內庭穴, 足腹中妙訣”이라하여 腹部疾患은 모두 治療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現代醫學의 實驗 結果 報告를 보면 鮑³³⁾는 足三里穴에 人胚混合 精製液을 注入하여 人體免疫機能이 失調된 70例의 症狀을 100% 改善調節한 臨床報告를 했다. 孫³⁴⁾은 足三里 針刺가 大鼠心臟 機能에 影響하는 것에 대한 實驗研究에서 心律減慢, 血壓下降, 左心室內壓 左心室擴張期終末壓, 心筋酸素消耗指數가 모두 低下 되었으며 曲池穴에서는 이런 作用이 없었다고 報告했다. 劉³⁵⁾는 纖維胃內視鏡 觀察下에서 幽門環緊閉患者 41例에 대해서 足三里 針刺 平補平瀉法을 使用하여 幽門環開放後 가볍게 捻轉하면서 拔針한 例中 40

例가 幽門環이 完全開放되어 十二指腸部 檢查를 順坦하게 마쳤고, 1例에서 部分 開放이 되었다고 報告했다.

內庭穴은 足陽明胃經의 榮穴³⁶⁾으로써 針感의 走向과 經脈의 循行에 따라 足陽明經脈, 經別이 循行하는 頭額, 面頰, 咽喉, 口齒, 鼻及下肢疾患에 多用되며 淸降胃火³⁷⁾의 效能으로 隱疹 咽喉痛 牙痛 四肢厥 虐疾不能食 등을 다스리며 淸心安神³⁸⁾의 效能이 있어 喜靜惡聞聲 數欠 등을 다스리며 胃火熾盛으로 된 病症에 常用穴이다. 臨床上 瀉法을 多用하고 있으며 艾灸는 잘 使用하지 않는 편이다.

內庭은 《千金十穴歌》에 “三里 內庭穴, 足腹中妙訣”이라하여 胃熱로 起因한 疾患 및 腹部疾患에 常用할 수 있으며 最近에는 流行性腦炎, 小兒麻痺 等에도 應用한다.

2. 曲池 合谷에 관한 研究.

曲池穴은 手陽明大腸經의 合穴으로써 經脈氣가 들어가서 合하는 곳으로 兪窠에 比喻

31) 山東中醫學院 校釋：針灸甲乙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1980，pp.959, 983.

“狂歌妄言 痙身反折 口禁 喉痺 乳癰有熱 灸足三里 能令火氣下降而明目”
《外臺秘要》“人年三十以上 若不灸三里 令人氣上衝目”

“患風疾人 宜灸三里者 五臟六腑之溝渠也 常欲宣通 即無風疾”.

32) 黃明堂 校勘(明)楊繼州 原著：校勘注解 針灸大成，台北，文光圖書有限公司，中華民國 74年，p.84.
《通玄指要賦》“三里却五勞之羸瘦”.

33) 鮑治安：足三里穴注人胚混合勻漿調節改善機體免疫功能失調70例的 臨床分析，中國 針灸，1990，10(3)，pp. 29~30.

34) 孫忠人：針刺“足三里”穴對大鼠心臟功能影響的實驗研究，中醫藥信息，1988，(1)，pp.40~41.

35) 劉巨璋：纖維胃鏡直視下針刺足三里對幽門環弛效果的觀察，福建中醫藥，1987，18(4)，p.5.

36) 本間祥白 著，吳家鏡 譯：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p.387~388.

“井主心下滿，榮主身熱，俞主體重節痛，經主喘咳寒熱，合主逆氣而泄”“榮穴屬火，而在 陰經爲心經之氣所通行的地方。乃意味身熱爲心火之病，故身熱應使用榮火穴治療”

37) 郭靄春 編著：上揭書，p.48

“榮輸治外經，合治內腑”.

38) 孫思邈 著：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84，pp.526.528.531.

“우齒.” “익痛.” “腹脹滿不得息.” “虐不嗜食.”

39) 山東中醫學院 校釋：上揭書，p.958.

“四厥，手足悶者…脛痛腹脹皮膚痛，善伸數欠，惡人與木音”.

하고 주部屈曲處에 있어 曲池라했다. 本穴은 大腸腑病을 주로 治療하고 循行經路上의 疾患도 治療하며 散風止痒⁴⁰⁾의 效能으로 主中痛 偏風手不收 挽弓不開 遍身風癩癩 等を 다스리며 清熱消腫⁴¹⁾의 效能으로 喉閉促欲死 發熱更無休 等を 다스린다. 曲池는 皮膚病, 外感表症, 頭面咽喉病과 循行經路上의 主臂肩頸項 疾患을 治療하며 臨床上 자주 大腸腑病에 大腸下合穴인 上巨虛를 配合하면 效果가 아주 뛰어나며 現代醫學의 過敏性 疾患들에 자주 應用된다. 宮⁴²⁾은 曲池穴에 針刺후 按摩하여 乳癰 79例를 모두 治療했다고 報告했다.

合谷은 手陽明大腸經의 原穴⁴³⁾이며 回陽九針穴⁴⁴⁾로써 取穴이 쉽고 針感의 調節이 容易하여 應用範圍가 넓으며, 한편 手陽明大腸經脈⁴⁵⁾ 絡脈⁴⁶⁾ 經筋⁴⁷⁾ 모두 從手走頭하여 循行

하므로 頸 面頰 下齒 鼻等의 疾患인 頭面五管部位에 治療의 重點이 있고, 清熱解表⁴⁸⁾ 明目聰耳⁴⁹⁾ 50) 鎮痛 催產⁵¹⁾ 等の 效能이 있다.

合谷은 治療 範圍가 매우 廣範하여 《四總穴歌》에 “口面合谷收” 《千金十穴歌》에 “曲池與合谷, 頭面病可徹”이라 하여 頭面疾患은 모두 治療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林⁵²⁾에 의하면 東醫寶鑑 針灸治療編에 31種 症狀에 應用 되었고 臨床效能 實驗에서 合谷穴을 排除한것이 合谷 單獨治療나 併用治療보다 훨씬 못하다고 한다. 最近에는 癲醉에도 應用하며, 張⁵³⁾은 面癩 患者에 대한 赤外線熱象도 觀察에서 合谷穴 針刺가 面部에 顯著한 昇溫效果를 나타내며 患部에 대해 疏通經絡하고 氣血運行을 改善하여 機能回復을 促進하는 作用이 있다고 한다. 趙⁵⁴⁾는 合谷穴 針刺가 橫膈膜 痙攣症 15例를 모두 治療했다고

40) 黃明堂 校勘(明) 楊繼州 原著: 上揭書, p.259.

“主繞頭風, …主中痛, 偏風半身不遂, 惡風邪氣, 泣出喜忘, 風隱疹, 挽弓不開, 屈伸難, …”

41) 山東中醫學院校釋: 上揭書, pp.940.1049.

“傷寒余熱不盡, 曲池主之; 胸中滿, 耳前痛, 齒痛, 目赤痛, 頸腫, 寒熱, 渴飲輯汗出, 不飲則皮乾熱, 曲池主之”.

42) 宮俊德: 針刺按摩曲池治愈乳癰79例, 中國針灸, 1987, 7(6), p.55.

43) 周樹冬(清) 遺稿: 金針梅花詩主, 安徽科學技術出版, 1982, p.55.

經 六十六難曰 “三焦者原氣之別使也, 主通行氣血, 經歷五臟六腑…故所止輒爲原. 五臟六腑之有病者, 皆取其原也.” 徐靈胎曰 “原者蓋謂五臟之氣皆會于此, 而別絡之 氣亦因乎此”.

44)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 上揭書, p.115.

“啞門, 勞宮, 三陰交, 湧泉, 太溪, 中脘, 環跳, 三里, 合谷”.

45) 郭竊春 編著: 上揭書 《靈樞經脈篇》, p.104.

46) 郭竊春 編著: 上揭書 《靈樞 經脈篇》, p.131.

47) 郭竊春 編著: 上揭書 《靈樞 經筋篇》, p.157.

48)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 上揭書, p.258.

“傷寒大渴, 脈浮在表, 發熱惡寒, 頭痛, 脊強, 無汗, 寒熱虐, 鼻衄不止, 熱病汗不出”.

49) 山東中醫學院校釋: 上揭書, p.1452.1460.1279.

“聾, 耳中不通, 合谷主之; 齒牙痛, 合谷主之; 非臂腕不用, 臂吻不收, 合谷主之”.

50)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 上揭書, p.83.

《通玄之要賦》 “眼痛則合谷以推之”.

51) 孫思邈著: 千金翼方, “難產脈絕不還, 針合谷入三分, 急補之, 又主胎上膈心”.

52) 林鍾國: 東醫寶鑑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研究, 大韓韓醫學會誌, 1975, 12(1), p.61~68.

53) 張棟: 針刺合谷穴對面癩治療作用的紅外線熱象觀察, 中醫雜誌, 1989, 30(5), 32~35.

54) 趙淑俠: 針刺合谷穴治療膈肌痙攣症15例, 針灸學報, 1990, 6(2), p.51.

報告했다.

3. 委中 承山에 관한 研究.

委中穴은 足太陽經脈의 合穴이며, 四總穴⁵⁵⁾의 하나이며 膀胱下合穴이다. 足太陽經의 體表循行經路上的 病變을 治療하고 血管이 豊富한 곳에 位置하여 放血療法을 多用하며 急性熱病, 神志病, 循行經路上的 瘀血性疾患, 皮膚病 等에도 應用한다. 清熱醒腦⁵⁶⁾ 理血消腫⁵⁷⁾의 效能이 있다.

委中은 《四總血歌》에 “腰背委中求” 《千金十穴歌》에 “腰背痛相連, 委中 崑崙穴”이라하여 人身의 後面疾患과 腰部疾患을 모두 治療하며 曲澤과 함께 四彎穴으로써 急性實熱症에 多用하며 이 두穴의 放血療法에서 效能을 比較하면 曲澤은 清心安神, 清上焦之熱, 消散胸臂, 上肢 및 肘窩部의 瘀血, 瘡瘍에 應用하고 委中은 清熱降火, 清頭腦之熱, 消散腰背, 下肢

및 膝窩部의 瘀血, 瘡瘍에 應用한다.

또한 放血療法은 治療외에 血質의 粘稠度와 出血의 速, 遲 血色의 深淺 等으로 診斷과 病의 豫候判斷에도 應用한다. 吳⁵⁹⁾는 委中穴을 點刺瀉血(10±5cc)하여 急性腰部捻挫 21例를 모두 治療했다고 報告했다.

承山穴은 그 所在部位의 筋肉 形態에 따라 命名한 것으로 “肉柱”, “魚腹”, “腸山” 등으로도 불린다. 足太陽經脈 循行通路上的 疾患을 治療하고 肛門病變의 常用穴⁶⁰⁾이며 理氣止痛⁶¹⁾의 效能으로 腰痛 脚氣并膝腫 輾轉戰疼酸等症을 다스리고 消痔舒筋⁶²⁾의 效能으로 痔疾大便難 霍亂及轉筋 等症을 다스린다.

承山穴은 效能이나 穴의 特性狀 瀉法을 多用하며 承山과 承筋의 強刺戟 透刺法 治療는 小腿疔疼痛과 痙攣에 效果가 越等하다. 王⁶⁴⁾은 條口에서 承山穴로 透針해서 五十肩 50例에 대해 96%의 總有效率을 얻었다고

55) 施土生編：上揭書, p.99.

本歌는 原來 明代 朱權이 著作한 《乾坤生意》에 실려 있었다. 四穴은 合谷, 列缺, 足三里, 委中을 指稱하며, 總은 總括 概括의 뜻이다. 全身十四經 所屬의 數百穴의 效能이 四個穴에 歸納되므로 四總穴이라한다. 四總穴은 《靈樞 終始 篇》에 “從腰以上者, 手太陰陽明皆主之; 從腰以下者, 足太陰陽明皆主之”에 根據해서 發展했다. 四穴은 實際臨床에서 針感이 強하고 效果가 빠르며 治療範圍가 廣範하여 遠道取穴의 典範이 된다.

56) 孫思邈著：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536.

“癲疾反折, 委中主之”.

57) 郭篤春 編著：上揭書, p.246.

《素問 刺腰痛論》“足太陽脈令人腰痛, 引項脊尻背如重狀, 刺其郛中”.

58) 黃明堂 校勘, 楊繼州 原著：上揭書, p.87.

《靈光賦》“五般腰痛委中安”.

59) 吳義才：委中點刺放血療法治急性腰扭傷21例, 上海中醫藥雜誌, 1988, (5), p.39.

60) 郭篤春編著：上揭書《靈樞 經別篇》, p.138.

“足太陽之正, 別入於郛中, 其一道下尻五寸, 別入于肛”에 따른 것이다.

61) 山東中醫學院校釋：上揭書, p.953.

“구육, 腰脊痛, 脚伸重, 戰慄, 不能久立, 伸如裂, 脚急痛, 足攣引少腹痛, 咽喉痛, 大便難, 頤脹, 承山主之”.

62)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上揭書, p.307.

“主大便不通, 轉筋, 痔腫, 戰慄不能立, 脚氣膝腫, 脛伸脚己痛, 筋急痛, 霍亂, 急食不通, 傷寒水結”

63)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上揭書, p.102.

《玉龍歌》“九般痔漏最傷人, 必刺承山效若神”.

64) 王正禮：針刺條口透承山治療五十肩50例, 浙江中醫學院學報, 1989, 13(4), p.50.

報告했다. 最近에는 足下垂 五十肩, 痛經等에도 應用한다.

4. 太衝 崑崙에 관한 研究.

太衝은 足厥陰肝經의 俞穴⁶⁵⁾ ⁶⁶⁾ ⁶⁷⁾이며 原穴이다. 肝의 臟病, 經病, 氣化病과 肝과 關聯 있는 臟腑器官의 疾病을 主治하고 肝臟機能 失調로 發生하는 病理症候에도 效果가 있으며, 아울러 厥陰肝經脈通路上的 病症을 治療하며 平肝熄風⁶⁸⁾의 效能으로 驚癇風 등을 治療하며 疎肝理脾⁶⁹⁾의 效能으로 咽喉并心脹 兩足不能行 七疝偏墜腫 腰痛 등을 治療한다.

太衝穴은 肝의 生理特性狀⁷⁰⁾ 瀉法을 多用

하며, 三部九候脈⁷¹⁾ ⁷²⁾ ⁷³⁾의 하나로 動脈搏動의 強弱 有無로 生死를 判斷하며 現代醫學에서는 足部血栓閉塞性 脈管炎의 診斷에 應用하며, 肝膽病, 神經性疾患, 自律神經紊亂 疾患, 眼病에 자주 應用한다. 楊⁷⁴⁾은 太衝穴에 蒸溜水를 注射하여 甲狀腺亢進症 15例를 治療했다고 報告했고, 富⁷⁵⁾는 太衝穴에 注射用 蒸溜水를 注射하여 乳娥患者 54例中 全愈 45例, 顯效 8例, 無效1例 였다고 報告했다.

崑崙穴은 足太陽膀胱經의 經穴⁷⁶⁾ ⁷⁷⁾ ⁷⁸⁾로써 氣喘, 咳嗽, 寒熱, 咽喉不利 等症에 利用하며 足과關節 局部的 治療作用 以外에 經絡循行 通路上的 病變을 治療하며 足下垂 足內반,

65)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p.387~388.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俞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俞穴屬土, 而在 陰經爲脾經之氣所通行的地方. 身體重和關節痛爲脾胃的疾病, 這個時候, 應以俞穴爲 治療的地方.”

66) 郭靄春 編著: 上揭書《素問 咳論》, p.232.

“治臟者, 治其輸”.

67) 郭靄春編著: 上揭書《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 p.319.

“病時間時甚者, 取之俞”.

68) 山東中醫學院校釋: 上揭書, p.978.

“經互引善驚, 太衝主之”

69) (清)吳謙 等編: 醫宗金鑑, 人民衛生出版社, 1982, p.(總2249).173.

“腫滿” “霍亂吐瀉, 手足轉筋”.

70) 全國韓醫科大學共著: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9, p.25.

“喜條達, 惡抑鬱”

71) 程士德 主編: 內經, 서울, 醫聖堂, p.543.

“下部天足厥陰, 大腿內側上端五里穴分, 婦人取太衝穴候肝”.

72) 郭靄春編著: 上揭書《素問至真要大論編》, p.477.484.

“陽明司天, 燥淫所勝, …病本于肝, 太衝絕, 死不治” “陽明之復, 清氣大舉, …太衝絕, 死不治”.

73) 郭靄春 編著: 上揭書《素問 氣交變大論》, p.403.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太衝絕者, 死不治”.

74) 楊樹玉: 太衝穴注射治療甲亢15例, 針灸學報, 1990, 6(1), p.31.

75) 富閔泰: 太衝穴注射治療乳娥54例, 針灸學報, 1990, 6(1), p.30.

76)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p.387~388.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俞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經穴屬金, 而在 陰經爲肺經之氣所通行的地方. 肺病多會發生喘咳, 且病會來至肺合的皮膚, 呈現寒熱 往來的症狀”.

77) 郭靄春 編著: 上揭書《素問 咳論》, p.232.; “浮腫者, 治其經”.

78) 郭靄春編著: 上揭書《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 p.319.

“病變于音者, 取之經”.

外반 治療에 常用하며 淸熱利濕⁷⁹⁾의 效能으로 暴喘滿衝心 舉步行不得 等を 다스리고 鎮痙止癱⁸⁰⁾의 效能으로 轉筋腰尻痛 等を 다스린다.

崑崙穴은 應用範圍가 廣範하여 《千金十穴歌》에 “腰背痛相連, 委中崑崙穴”이라하여 人體後面 疾患을 모두 治療하며 前後俯仰 不能 일때는 崑崙을 瀉하고, 左右回顧 不能 일때는 手太陽經의 後谿穴을 瀉하여 頭痛, 落枕에 多用⁸¹⁾한다.

透刺法을 應用⁸²⁾함에 있어 病이 陰에서 發生한 것은 太溪穴에서 崑崙穴로, 病이 陽에서 發生한 것은 崑崙에서 太溪穴로 透刺한다.

5. 環跳 陽陵泉에 관한 研究.

環跳穴은 足太陽經과의 交會穴⁸³⁾이며 비樞部와 足少陽, 足太陽經이 循行하는 下肢經脈 病變의 常用穴이다. 祛風化濕⁸⁴⁾의 效能으로 冷風并濕痺 等を 治療하며, 疏通經絡⁸⁵⁾의 效能으로 折腰莫能顧 腿과連連痛 等を 다스린다 비樞는 肌肉이 豊富하여 比較的 深刺⁸⁶⁾ 87) 하는 경우가 많다.

本穴은 現代醫學의 關節痛, 坐骨神經痛, 關節炎, 小兒麻痺, 舞蹈病, 下肢痙攣 等の 疾患에 多用하며 《千金十穴歌》에 “環跳與陽陵, 膝前廉腋脇”이라 言及했듯이 陽陵泉과 配合

79) 孫思邈著：上揭書, pp.523, 524, 530, 528, 529, 531.

《千金要方》“頭熱”“目急痛赤腫”“洞泄體痛”“不得大便”“腹痛喘暴滿”“腰尻腫”.

80) 黃明堂校勘, 楊繼洲原著：上揭書, p.307.

“肩背拘急”“腰脊內引痛, 구루”“婦人孕難, 胞衣不下, 小兒發癩疥瘡”.

81) 郭霽春編著：上揭書《靈樞 雜病》, p.237.

“項痛不可以仰, 刺足太陽, 不可以顧, 刺手太陽”

82) 郭霽春 編著：上揭書《靈樞 終始編》, p.97.

“病先起陰者, 先治其陰, 而後治其陽, 病先起陽者, 先治其陽, 而後治其陰”

83) 김영진감수：알기쉬운針灸學, 서울, 圖書出版 열린책들, 1991, p.160.

會穴은 두개 經脈이나 惑은 그 以上の 經脈이 서로 모이는 곳인데 全身에 약 70여개가 있어서 本經의 疾病뿐만 아니라 그 交會하는 脈의 疾病을 兼하여 治療할 수 있다.

84) 黃明堂校勘, 楊繼洲原著：上揭書, p.337.

“冷風濕痺不仁, 風疹遍身, 半身不遂, 腰과痛寒, 膝不得轉側伸縮”.

85) 山東中醫學院校釋：上揭書, p.1246.

“腰脇引痛急, 비筋계, 脛痛不可屈伸, 痺不仁, 環跳主之”.

86) 郭霽春編著：上揭書《榮樞 官針篇》, p.72.

“疾淺針深, 內傷良肉, …病深針淺, 病氣不瀉”.

87) 郭霽春編著：上揭書《素問 刺要論篇》, p.299.

“病有浮沈, 刺有淺深, 各至其理, 無過其道……淺深不得, 反爲大賊”.

88) 張國聖：電針深刺, 淺刺環跳穴對大白鼠鎮痛及藍斑內組化成分的影響, 針刺研究, 1991, 16(3), p.203~206.
張은 環跳穴에 針深刺 및 淺刺가 큰 쥐의 鎮痛 및 靑斑內 組織化學 成分에 대해 미치는 影響을 觀察한 結果 深刺組 動物은 電針後 痛症에 대한 역치가 顯著히 上昇 되었고 靑斑內 AChE反應도 顯著히 增強했고 靑斑內 核酸의 染色도 增強했으며 淺刺組와 對照組에 비해 뚜렷한 差異가 있었다. 淺刺組에서는 疼痛에 對한 역치가 上昇했으나 深刺組에 비해 顯著하지 않으며 淺刺組와 對照組은 별로 差異가 없었고 靑斑內 AChE 反應과 核酸의 染色도 變化가 없고 對照組와 比較하여 별로 差異가 없었다고 報告했다.

하여 人體側部 疾患에도 모두 應用할 수 있다.

陽陵泉은 足少陽膽經의 合穴이자 六腑 下合穴이며 八會穴⁸⁹⁾ 中의 하나인 筋會穴이다. 膽腑病, 筋病, 少陽膽經의 循行通路上的 病變을 治療하며 疏肝利膽⁹⁰⁾ 舒筋鎮痙⁹¹⁾ 等の 效能이 있다.

陽陵泉은 治療範圍가 廣範하여 《千金十穴歌》에 “環跳與陽陵, 膝前廉腋脇”이라하여 人體측部の 疾患 및 膝部の 疾患을 모두 다스리며, 張⁹²⁾은 實驗報告에서 典型的인 Oddi氏 括約筋 痙攣患者 2例를 陽陵泉, 韃子穴에 電針을 刺했을때 總膽管의 動態를 PTC로 觀察한 結果 括約筋의 開放과 擴張 및 總膽管의 內壓上昇 作用이 있어 膽汁저滯로 因한 黃疸이나 膽石症에 應用할 수 있다고 한다. 趙⁹³⁾은 陽陵泉을 針刺(提插 및 龍虎交戰法 使用)

하여 落枕患者 95例를 全愈 했다고 報告했다.

6. 通里 列缺에 關한 研究.

通里는 手少陰心經의 絡穴⁹⁴⁾이며 神志病, 心血管과 心臟經脈, 絡脈 循行處의 病變 및 小腸病을 治療한다. 寧志安神⁹⁵⁾의 效能으로 欲言聲不出 懊惱及 怔忡 等を 다스리며 益陰清心⁹⁶⁾의 效能으로 頭面頰紅 暴赤面無容 等を 다스린다.

太淵穴과 效能을 比較해 보면 通里穴은 心實症과 舌體, 小腸病에 偏重되며 太淵穴은 心實症을 治療하면서 心虛症에도 多用한다. 常⁹⁷⁾은 通理穴을 針刺하여 下顎關節炎 21例를 治療했다고 報告했으며, 最近에는 失語症, 精神分裂症, 甲狀腺 機能亢進症 等에도 應用한다.

89) 김영진 감수: 上揭書, p.170.

八會穴은 8개 輸穴의 主治에 根據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會라함은 여러 經이 交會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會穴이 單獨으로 어느 臟이나 腑, 筋 또는 骨의 疾病들을 治療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五臟에 病이 있을때 章門穴을 取하거나 (臟會-章門) 모든筋病에는 陽陵泉을 取하며 기타 會穴들도 同一하다.

90) 郭鶴春編著: 上揭書 《靈樞 邪氣臟腑病形篇》, p.52.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宿汁, …取陽陵泉”

91) 黃明堂校勘, 楊繼注原著: 上揭書, p.337.

“膝伸不得屈, 髀樞膝骨冷痺, 脚氣, 膝股內外廉不仁, 偏風半身不遂, 脚冷無血色, 苦口中介然, 頭面腫, 足筋攣”

92) 張奇昌: 電視觀察經皮肝穿膽管造影時電針陽陵泉, 韃子的總膽管動態, 貴陽中醫學院學報, 1989, (2), p.6.

93) 趙福成: 針刺陽陵泉治療落枕95例初步觀察, 貴陽中醫學院學報, 1990, (2), p.36.

94) 林鍾國 著: 針灸治療學, 集文堂, 서울, 1983, p.167.

絡穴은 表裏하는 經脈의 疾患을 疏通, 調整하는데 가장 많이 應用한다. 表病이 裏에 傳導되거나 或은 裏病이 表에 傳導됐을 경우 相合하는 絡穴을 選擇한다.

95) 黃明堂校勘, 楊繼州原著: 上揭書, p.286.

“目眩頭痛, 熱病先不樂, 數日懊惱, 數欠, 頰呻悲”.

96) 孫思邈著: 上揭書, 《千金要方》 pp.537.527.

“熱病先不樂, 頭痛面熱無汗” “卒痛頰心, 心中懊惱, 數欠頰伸, 心下悸, 悲恐”

97) 常風云: 針刺通里穴治療下顎關節炎21例, 河北中醫, 1987, 9(4), p.39.

列缺穴은 手太陰肺經의 絡穴이며 四總穴의 하나이고 八脈交會穴⁹⁸⁾이며 任脈에 通한다. 宣肺散邪⁹⁹⁾의 效能으로 偏頭患 遍身風痺 口禁不開牙 等を 治療하며 通調任脈¹⁰⁰⁾의 效能으로 痰涎頻壅上 等を 治療한다.

列缺穴은 肺衛와 肺系疾患, 肺大腸經 體表循行 通路上的 病變外에 任脈과 關聯된 疾患과 《四總穴歌》에 “頭項尋列缺” 《千金十穴歌》에 “頭項如有痛, 後谿并列缺”이라하여 頭頸部 疾患에 모두 應用할 수 있어 그 治療範圍가 廣範하며 合谷과 配合하면 “原絡配穴法”이 되고 照海穴과 配合하면 “奇經八脈配合”이 되어 咳嗽, 胸滿, 咽喉不利 등의 病症을 治療한다.

孫¹⁰¹⁾은 列缺穴은 二重의 相調作用이 있어 針刺로 毛細血管 透過性을 增加 시키기도 하고 減少 시키기도 하며 또 尿中 蛋白含量을 迅速히 減少 시키며 尿道部 血管을 收縮 시킬수 있다고 한다.

V. 總括 및 考察

歌賦는 內容이 含蓄的이며 쉽게 記憶할 수 있는 長點이 있고 醫學의 教育이나 實際 臨床에 있어서 便利함 때문에 導入된 形式으로 元, 明, 清代에 이루어진 것이 大部分이다¹⁰²⁾.

특히 針灸歌賦는 經絡歌, 刺灸歌, 俞穴歌, 治療歌로 大別되며 《針灸大全》, 《針灸聚英》, 《針灸大成》등의 書籍에 集中的으로 紹介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大略 歌訣이 90餘首 賦가 10餘首 程度이다.

“馬丹陽¹⁰³⁾ 天星¹⁰⁴⁾ 十二穴 治雜病歌”(以下 本歌로 稱)는 元代 王國瑞의 《扁鵲神應針灸玉龍歌》에 처음으로 記載되어 있으며, 徐鳳의 《針灸大全》에 太衝穴을 加하여 《馬丹陽天星十二穴并治雜病歌》, 明代 吳昆의 《針方六集》에 《馬丹陽天星十二穴歌》, 高武의 《針灸聚英》에 《薛真人天星十二穴歌》, 楊繼州의 《針灸大成》에 《馬丹陽天星十二穴治雜病歌》로 記載

98) 林鍾國著：上揭書, pp.168~169.

八脈交會穴은 四肢에 있으며 奇經八脈으로 通하고 있는 8개의 經穴이다. 奇經 八脈의 全部가 四肢로 通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十二經脈과 交會하고 있는 關係로 보아서 四肢에는 奇經으로 通하는 經穴이 있으며 治療에 있어서 奇經과 關係가 있는 病症에 適應된다. 八脈의 交會穴은 上肢와 下肢로 갈라져 있어서 治療에 있어서는 上下를 配合應用한다.

99) 山東中醫學院校釋：上揭書, pp.1011, 1047.

“寒熱胸背急, 喉痺, 咳上氣喘, 掌中熱, 數欠伸, 汗出善忘, 四厥逆, 善笑, 溺白, 列缺主之”
“虛熱甚, 列缺主之”.

100) 黃明堂校勘, 陽繼州原著：上揭書, p.238.

《八脈圖并治症穴》“痔虛便腫泄瀉, 唾紅溺血咳痰, 牙疼喉腫小便難, 心胸腹疼咽, 產後發強不語, 腰痛血疾臍寒, 死胎不下膈中寒, 列缺乳難多散”.

101) 孫麗娟：列缺穴의 探析：兼論“頭項尋列缺”, 中國針灸, 1988, 8(1), p.34~36.

102) 朴旻南 孟雄在著：上揭書, p.66.

103) 施士生編：上揭書, p.203.

馬丹陽은 宋代扶風人, 初名成義, 字宜補, 後에 改名하여 鉦이라 하고 字는 元 寶라함 重陽子王嘉를 만나 道術을 傳受받음. 後에 北宋의 道教 代表의인 人物이며 號는 丹陽順化真人, 故로 世人들은 馬丹陽이라 稱함. 針灸에 精通 하였음.

104) 施士生편：上揭書, p.206.

天星：《靈樞》에 毫針이 七星의 意義에 應하므로 由來된 것으로 생각됨. “七曰毫針七者星也, 星者人之七竅” 또 天은 上部를 意味하므로 7개 經絡과 12穴은 모두 頭部 및 上焦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되어 있는데, 이로보아 本歌는 明代에 廣範하게 流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⁵⁾.

天星 十二穴은 十二經中 比較的 重要한 經脈으로 그중 曲池 合谷, 足三里 内庭, 列缺은 陽明과 太陰 兩經에 分布되어 頭面 胸腹 등 器官의 病症을 通治할 수 있다. 委中 承山 崑崙은 腰背部의 足太陽經脈에 分布되어 背部疾病 治療의 要穴이고, 環跳 陽陵泉 太衝은 脇肋 兩側의 足少陽, 足厥陰經脈에 分布되어 肝膽 脇肋 兩側 疾病의 要穴이며, 六腑下合穴 中에서 足陽明胃經上의 上巨虛(大腸合穴), 下巨虛(小腸合穴), 足三里(胃의合穴)中 代表穴인 足三里를 選擇한 것과 足太陽膀胱經上의 委陽(三焦合穴), 委中(膀胱合穴)中 代表穴인 委中을 選擇한 것 이며, 그리고 足少陽膽經上의 陽陵泉(膽의合穴)等 三穴의 選擇은 五俞穴中 合穴이며 同時에 六腑下合穴로써 充分히 六腑下合穴을 모두 取穴한 效果를 얻었으며, 榮穴, 俞穴, 經穴, 八會穴, 絡穴, 交會穴, 八脈交會穴, 原穴, 四總穴, 回陽九針穴等 多種類의 特殊穴들이 高루 取穴 되었으며 環跳穴을 除外한 모든穴이 四肢手膝以下의 穴들로써 臟腑 및 頭面, 軀幹, 腰背脇肋, 四

肢等의 疾患을 모두 다스릴 수 있으므로 三百六十穴이 以上の 十二穴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強調 하였다.

足三里와 内庭穴은 모두 胃經 寸穴¹⁰⁶⁾이며 胃經은 腹內를 循行하여 屬胃 絡脾한다. 足三里는 胃의 合穴로써 “合治内腑”¹⁰⁷⁾ 하므로 脾胃, 消化 및 肚腹疾病의 要穴이다. 脾胃가 建運하면 血氣生化가 充足되어 諸虛百損, 體弱羸瘦를 다스리며 足三里에는 또 “若要安, 三里常不乾”¹⁰⁸⁾이라 하여 豫防效能도 있다. 脾胃는 表裏가 되고 脾主四肢하고 陽明은 氣를 三陽에 行¹⁰⁹⁾ 하므로 足三里는 下肢 痰喘, 痿弱, 痺痛을 痛을 治療하는 要穴이 된다. 内庭穴은 胃經의 榮穴이다. 榮穴은 主身熱 하므로 邪熱上攻으로 나타나는 咽痛에 内庭은 能히 清熱瀉火 消腫止痛한다. 足三里는 足陽明脈이 所入하는 合穴로써 “逆氣而泄”¹¹⁰⁾을 主하고 内庭은 足陽明脈이 所溜하는 榮穴로써 “主身熱”하며 “榮輸治外經, 合治内腑”¹¹¹⁾라하여 足三里와 内庭의 配合으로 足陽明胃經의 臟腑病 및 外經病¹¹²⁾을 모두 治療할 수 있게 하였다.

曲池와 合谷은 모두 手陽明大腸經 寸穴로

105) 施士生：上揭書, p.104.

106) 김영진김수：알기쉬운韓醫學, 圖書出版 열린책들, 1991, p.159

經絡線에서 反應이 더욱 顯著하게 나타나는 點을 수혈이라고 한다. 수혈은 脈氣運이 모이는 部位이며 針과 뜸을 實施하는 部位이며 人體의 內臟 臟器 氣運이 通하는, 즉 經絡의 氣運이 모이며 體表에 輸送되고 注入하는 곳이다. 수는 옮겨 간다는 意味를 包含하고 있다. 穴은 빈틈 사이라는 뜻이 있다. 수혈은 또한 氣穴, 孔穴 等の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107) 郭鶴春編著：上揭書《靈樞 邪氣臟腑病形》，P.48.

108) 謝錫亮, 許曉琳編著：灸法,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86, p.91.

《醫說》“若要安, 三里莫要乾. 患風疾人, 宜灸三里者, 五臟六腑之子渠也, 常欲宣通, 即無風疾.”

109) 郭鶴春編著：上揭書《素問 太陰陽明論》，p.187.

110)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p.387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俞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

111) 郭鶴春編著：上揭書《靈樞 邪氣臟腑病形》，p.48.

112) (清) 陳夢雷等編：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二冊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316.

張志聰註：“故外感于邪, 獨取其掌后銳骨之神門穴, 蓋病在外經而臟不病也. 其余手足

十二經脈之出入屈折, 行之疾徐, 皆如手少陰心主之脈行, 蓋言十二經脈相同, 非少陰之獨無寸也.”

經脈이 從手走頭하여 前面部에 分布하며 五管疾病의 要穴이 된다. 陽明은 氣를 三陽에 運行하므로 內經에 “腰以上者, 手太陰陽明皆主之, 腰以下者 足太陰陽明 皆主之”¹¹³⁾라하여 二穴 配合은 上肢 痺痺, 痿, 痺의 要穴이 된다. 陽明은 兩陽合明¹¹⁴⁾이되어 陽氣盛하고 多氣多血하므로 邪盛則熱하고 陽虛則寒하므로 曲池 合曲을 瀉하여 能히 身熱과 內에 血熱이 있는것을 다스리고 肺主皮毛하며 肺와 大腸은 表裏가 되어 外感風濕으로 나타나는 皮膚諸疾을 治療한다. 曲池는 合穴이 되고 合谷은 原穴¹¹⁵⁾이 되며 모두 主膝 以下에 分布하여 兩穴의 配合은 肺와 大腸의 臟腑病 및 外經病을 모두 治療할 수 있게 하였다.

委中과 承山은 모두 足太陽 膀胱經의 主穴이며 그經脈은 背部로 行한다. 主筋所生病¹¹⁶⁾하고, 腎經과 表裏가 되며 風寒濕邪가 膀胱經에 侵犯하여 “項如拔, 脊痛, 腰似折, 不可以曲, 脊如結, 脊如裂”¹¹⁷⁾ 등 腰腿痺痛, 轉筋 等의 症狀이 出現할 수 있으며 腰는 腎之腑가 되어 腎氣不足하여 筋脈을 營養하지 못하면 腎虛腰痛이 되며 足太陽 經別의 一支脈이 尻下五寸에서 肛門에 別入¹¹⁸⁾ 하는 故로 痔疾 역시 本經病候가 된다. 委中은 膀

胱經 合穴이며 血管이 豊富한 곳에 位置하여 放血療法을 多用하며 診斷에도 應用한다 承山은 肛門病變의 常用穴이며 臨床上 瀉法을 多用한다. 二穴은 下部에 位置하여 江河의 出口에 해당되며¹¹⁹⁾, 河川이 찌꺼기로 막혀 出路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出口을 터주면 자연스럽게 流通 되듯이, 腰爲腎腑 背爲膀胱之腑로 痛症이 甚하면 經氣가 窒塞된 所致이므로 委中 承山에 刺絡 및 刺針을 한다.

太衝은 足厥陰肝經의 原穴이자 俞穴이며 肝經은 從足走腹¹²⁰⁾ 한다. 肝의 臟病, 經病, 氣化病과 肝과 關聯있는 臟腑器官의 疾病을 主治하고 肝臟機能失調로 發生하는 病理症候에도 效果가 있으며, 아울러 厥陰肝經脈通路上的 病症을 治療하며. 肝藏血하고 主筋하며 開竅於目하며 變動에 있어 握이되며 太衝은 平肝熄風의 效能이 있기 때문에 驚風癇癩을 治療하고 舒鬱散結하므로 疝痛, 胸脹脅痛을 治療할 수 있으며, 滋養肝血하므로 眼瞤을 治療하며, 舒筋活絡하므로 腰酸腿痛을 治療하며, 清肝火上炎하므로 咽喉痛, 目赤痛 等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다. 崑崙穴은 膀胱經의 經穴으로써 清熱截虐, 鎮痙止癇하는 效能이 있고 “病變于陰者, 取之經”¹²¹⁾ “經主喘咳

113) 郭靄春編著：上揭書《靈樞 終始》，p.227.

114) 郭靄春編著：上揭書《素問 至真要大論》，p.489, p.494.

115) 周樹冬(清) 遺稿：金針梅花詩叢, 安徽科學技術出版, 1982, p.55.

難經 六十六難曰 “三焦者原氣之別使也, 主通行氣血, 經歷五臟六腑…故所止輒爲原. 五臟六腑之有病者, 皆取其原也.” 徐靈胎曰 “原者蓋謂五臟之氣皆會于此, 而 別絡之氣亦因乎此”.

116) 郭靄春編著：上揭書《靈樞 經脈》，p.113.

117) 郭靄春編著：上揭書《靈樞 經脈》，p.113.

118) 郭靄春編著：上揭書《靈樞 經別》，p.138.

119) 孫震軒, 高立山編著：針灸心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176.

“此二穴雖位于下, 尤如下流之出口, 上下道爲淤泥所堵塞, 已無出路, 苟覓其出口, 則流 自通暢”.

120) 郭靄春編著：上揭書《靈樞 經脈編》，p.122.

“起于大指從毛之際, …, 繞陰器, 抵小腹, 挾胃屬肝絡膽, 上貫膈, 布脅肋, 循喉嚨之後上入 頤, 連目係, 上出額, 與督脈會於頂”.

121) 郭靄春編著：上揭書《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p.319.

寒熱”¹²²⁾ 하므로 咽喉不利, 咳嗽, 暴喘滿衝心 등을 治療한다. 太衝 崑崙穴의 配合는 原穴과 經穴의 配合으로 本歌에 記載된 兩穴의 主治面에서도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서로 輔佐함을 알 수 있다.

環跳와 陽陵泉은 모두 足少陽膽經수穴이며 膽經은 從頭走足하여 人身의 側部를 循行하므로 “胸, 脇, 肋, 髀, 膝外至脛, 絕骨, 外과及諸節皆痛, 小趾不用”¹²³⁾에 環跳와 陽陵泉을 取穴하여 治療하는 것은 循經取穴 方法이며 肝膽은 表裏가 되며 肝主筋하고 陽陵泉은 筋會穴이며 이며 靈樞 經脈編에 “膽經主骨所生病”이라 하였으므로 下肢筋骨不利 및 탄위 痺痛은 모두 兩穴이 主治할 수 있으며 陽陵泉은 合穴이 되어 “合治內腑”하고 環跳는 膀胱經과 交會穴로서 祛風化濕, 疏通經絡하여 外經病¹²⁴⁾에 常用되며 兩穴의 配合으로 膽經上의 모든疾患을 治療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通里는 手少陰心經 絡穴¹²⁵⁾이며 心經은 從胸走手하고 主神志하여 思惟活動과 血脈運行을 主管하며 其華在面하며 心과 小腸은 表裏가 되며 小腸經은 上行하여 頸, 頰을 지나 目銳자에 이르므로 通里의 寧志安神, 益陰清

心 효능으로 悟惱, 怔忡, 頭面頰紅, 暴음不能言¹²⁶⁾等症을 治療한다. 列缺은 肺經의 絡穴이며 肺經은 從胸走手하여 직접 頭項部에 分布하지 않지만 列缺이 肺經의 絡穴이고 肺經은 이곳으로부터 別出하여 手陽明大腸經에 連絡되기 때문에 肺經은 手陽明을 通해서 頭部에 到達하며 手太陰의 經別역시 “上出缺盆, 순후릉, 復合陽明”하여서 頭項으로 올라가며, 列缺은 八脈交會穴로 “通調於任脈”하며 照海穴과 通하며¹²⁷⁾ 肺는 皮毛를 主管하므로 外邪가 侵襲하여 頭項強痛, 偏身風痺癱, 痰涎頰壅上, 口禁不開牙 등을 治療할 수 있다. 心肺兩臟은 胸部에 位置하고 “君主之官과 相傳之官”의 密接한 關係에 있으며 二穴 모두 絡穴이며 治療面에서 서로 輔佐하고 있다.

以上을 綜合하여 살펴보면, 馬丹陽天星十二穴歌의 配穴은 經絡學說과 臟腑生理에 基礎한 循經取穴과 部分取穴法으로 《金十一穴歌》¹²⁸⁾서 影響을 많이 받은 듯 하며 擔法과 截法이라는 用語를 選擇 함으로써 應用이 多樣하여 三里와 內庭, 曲池와 合谷, 委中과 承山, 環跳와 陽陵泉의 配合은 擔法이 될 수 있고 太衝과 崑崙, 通里와 列缺의 配合은 截法이 될 수 있으며 本歌 列缺條에 “若能明補瀉,

122)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 上揭書, p.387.

123) 郭霽春編著: 上揭書《靈樞 經脈》, p.119.

124) (清) 陳夢雷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第二冊 醫經註釋下〉,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316.

張志聰註: “故外感于邪, 獨取其掌后銳骨之神門穴, 蓋病在外經而臟不病也. 其余手足十二經脈之出入屈折, 行之疾徐, 皆如手少陰心主之脈行, 蓋言十二經脈相同, 非少陰之獨無寸也.”

125) 林鍾國 著: 針灸治療學, 集文堂, 서울, 1983, p.167.

絡穴은 表裏하는 經脈의 疾患을 疏通, 調整하는데 가장 많이 應用한다. 表病이 裏에 傳導되거나 或은 裏病이 表에 傳導됐을 경우 相合하는 絡穴을 選擇 한다.

126) 黃明堂 校勘, (明) 楊繼州 著: 針灸大成, 文光圖書有限公司, 台北, 中華民國74年(8), p.113.

本歌 其十一 “... 悞惱及怔忡, ..., 頭面頰紅..., 暴음面無容...”

127) 楊繼州 著, 黃明堂 校勘: 上揭書, p.219~220.

128) 施土生編: 上揭書, p.157.

“三里內庭穴, 午腹中妙訣. 曲池與合谷, 頭面病可徹. 腰背痛相連, 委中崑崙穴. 胸項如有痛, 後溪并列缺. 環跳與陽陵, 膝前廉腋脇. 可補即留久, 當瀉即疏泄. 三百六十名, 十一千金穴.”

應手即如擘”라 하여 또 針灸의 補瀉法을 強調하고 있으며 兩側 足三里를 取穴 하였다면 擔法이 될수 있고 單側 足三里만 取穴 하였다면 截法이 되며 手技操作에서 右手提引하면 擔法이 되고 左手推按하면 截法이 되어 配穴法과 補瀉法 및 手技操作에 있어 “合擔用法擔, 合截用法截”을 靈活하게 運用 한다면 “治病如神靈, 渾如湯潑雪”의 效果를 얻을 수 있음을 強調하였다.

IV. 結 論

馬丹陽 天星 十二穴歌에 對해 諸家の 文獻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本歌에서 擔截法이란 主로 配穴과 取穴法을 意味하나, 補瀉法 및 手技 操作의 意味도 있다.

2. 本歌의 穴들은 承山穴을 除外한 모든穴이 한가지 以上の 特殊穴이며, 四肢 主膝以下에 分布하고 있어 效果가 卓越하고 應用 範圍가 넓으며 遠位取穴의 典範이 된다.

3. 三里와 內庭, 曲池와 合谷, 委中과 承山, 環跳와 陽陵泉은 모두 擔法으로 配穴 되었고, 太衝과 崑崙, 通里와 列缺은 截法으로 配穴 되어 治療效果 面에서 서로 輔佐하고 있다.

歌訣이란 숨겨진 用語를 使用하므로 그 弊端에 빠지지 않기 爲해서는 反復學習과 聯系思考 및 分析的 思考가 必要하다.

參 考 文 獻

1. 김영진감수 : 알기쉬운 침구학, 서울 :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1.
2. 홍원植 : 精校皇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

學研究員出版部, 1984.

3. 林鍾國 著 : 針灸治療學, 서울, 集文堂, 1983.
4. 全國韓醫科大學共著 :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9.
5. 金慶鎬 外 3人 : 金針賦의 手技補瀉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國漢醫大 研究所 論文集 第2卷 第2輯, 1993.
6. 朴昞南, 孟雄在, 蘭江賦에 대한 考察,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1992. 4.
7. 林鍾國 : 東醫寶鑑上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研究, 大韓韓醫學 會誌, 1975, 12 (1)
8. 郭鸞春 編著 : 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서울, 醫聖堂, 1993.
9. 謝錫亮, 許曉琳編著 : 灸法,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86.
10. 山東中醫學院 : 校釋 針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11. 上海中醫學院編 : 針灸學, 上海, 商務印書館出版, 1982.
12. 孫思邈 著 : 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84.
13. 孫震煥, 高立山編著 : 針灸心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4. 施土生編 : 針灸歌賦校釋, 中國, 山西科學教育出版社, 1987.
15. 楊繼州 著, 黃明堂 校勘 : 針灸大成, 文光圖書有限公司, 台北, 中華民國74年.
16. 吳謙 等編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7. 李鼎 主編 : 針灸釋難,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6.
18. 周樹冬(清) 遺稿 : 金針梅花詩초, 安徽, 安徽科學技術出版, 1982.
19. 陳夢雷等編 : 醫部全錄 <第二冊 醫經註釋

- 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0. 己瑞 外 二人 編, 經穴治療歌賦解說, 흥
尋: 上海書局有限公司, 1990. 7.
 21. 程士德 主編, 內經, 서울, 醫聖堂.
 22. 宮俊德: 針刺按摩曲池治愈乳癰79例, 中
國針灸, 1987.7 (6).
 23. 富閻泰: 太衝穴注射治療乳蛾54例, 針灸
學報, 1990. 6 (1).
 24. 常風云: 針刺通里穴治療下唇關節炎21例,
河北中醫, 1987. 9 (4).
 25. 孫麗娟: 列缺穴的探析, 兼論“頭項尋列
缺”, 中國針灸, 1988. 8 (1).
 26. 孫忠人: 針刺“足三里”穴對大鼠心臟功能
影響的實驗研究, 中醫藥信息, 1988.(1).
 27. 楊樹玉: 太衝穴注射治療甲亢15例, 針灸
學報, 1990.6 (1).
 28. 吳義才: 委中穴點刺放血療法治療急性腰
扭傷21例, 上海中醫藥雜誌, 1988.(5).
 29. 王正禮: 針刺條口透承山治療五十肩50例,
浙江中醫學院學報, 1989, 13 (4).
 30. 劉巨璋: 纖維胃鏡直視下針刺足三里對幽
門環松弛效果的觀察, 福建中醫藥, 1988,
18 (4).
 31. 張奇昌: 電視觀察經皮肝穿膽管造影時電
針陽陵泉, 刺子的總膽管動態, 貴陽中醫學
院報, 1989, (2).
 32. 張棟: 針刺合谷穴對面暈治療作用的紅外
熱象觀察, 中醫雜誌, 1989. 30, (5).
 33. 趙福成: 針刺陽陵泉治療落枕95例初步觀
察, 貴陽中醫學院學報, 1990.(2)33. 趙淑
俠: 針刺合谷穴治療膈肌痙攣症15例, 針
灸學報, 1990, 6 (2).
 34. 本間祥白 著,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
言出版社.
 35. 鮑治安, 足三里穴注人胚混合勻漿調節改
善機體免疫功能失調70例的臨床 分析, 中
國針灸, 1990, 10 (3)